DAY 11 · 2부 여기까지 온 길

AI는 어디서 시작됐을까? — 1958년, 배우는 인공 뉴런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9월 17일

무게를 곱해 더하고, 문턱을 넘으면 1 — 여기서 다 시작됐다

factnot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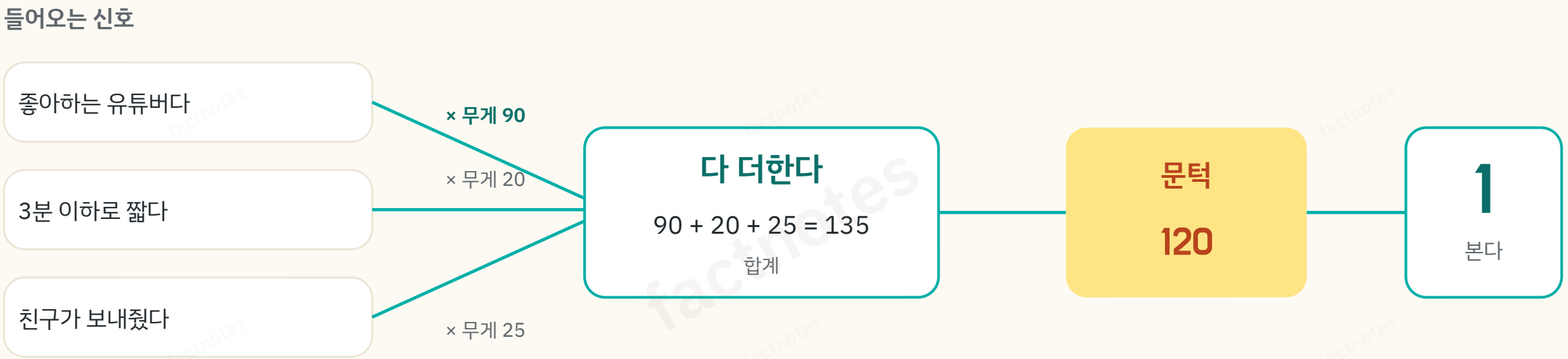
한 줄로 말하면

1. 1958년, 프랭크 로젠블랫이 **퍼셉트론**이라는 기계를 만들었어 — 사람 뇌의 신경세포 하나를 흉내 낸 인공 뉴런이야.

2. 하는 일은 딱 하나야. 들어온 신호마다 **무게(가중치)**를 곱해서 전부 더하고, 그 합이 **문턱**을 넘으면 1, 못 넘으면 0을 낸다.

3. 진짜 새로웠던 건 이거야 — 틀리면 **스스로 무게를 조금씩 고쳤어**. 규칙을 사람이 안 써 줘도 예시만 보고 배운 첫 기계였다.

인공 뉴런 하나가 하는 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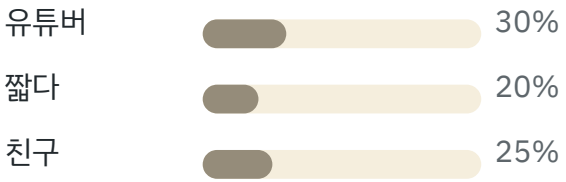
135은 120을 넘으니 1. 무게를 낮추면 합이 문턱 아래로 떨어지고, 답은 0으로 뒤집힌다.

핵심: 무게를 어떻게 두느냐가 곧 판단이다 — 그 무게를 스스로 고친 게 1958년의 사건

무게를 움직이면 답이 뒤집힌다

75 / 1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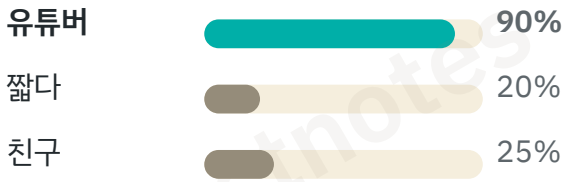
무게가 다 작을 때



합이 문턱에 못 미친다 → 0, 안 본다. 신호는 셋 다 켜져 있는데도.

135 / 1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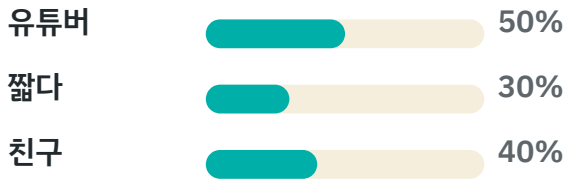
‘좋아하는 유튜버’ 무게만 올리면



그 하나만으로 문턱을 넘는다 → 1, 본다. 무게 하나가 판단을 끌고 간다.

120 / 120

무게를 골고루 나누면



혼자서는 못 넘어도 셋이 모이면 딱 넘는다 → 1. 합만 보고 정한다.

같은 신호, 같은 기계. 바뀐 건 무게뿐인데 답이 0과 1 사이를 오간다.

근거: Frank Rosenblatt, The Perceptron (Psychological Review 65(6), 1958) · McCulloch·Pitts 형식 뉴런(1943)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퍼셉트론(인공 뉴런) 하나가 하는 일을 한 줄로 말하면?

① 문장을 통째로 외웠다가 그대로 꺼낸다
② 신호마다 무게를 곱해 더하고, 문턱을 넘으면 1을 낸다
③ 인터넷을 뒤져 정답을 찾아온다
④ 사람이 써 준 규칙을 순서대로 하나씩 따른다

Q2 1958년 퍼셉트론이 그 전 기계들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?

① 계산이 훨씬 빨랐다
② 전기를 쓰지 않았다
③ 답이 틀리면 스스로 무게를 고쳤다
④ 그림과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

Q3 퍼셉트론의 '무게'는 오늘날 AI에서 뭐라고 부를까?

① 토큰
② 가중치 — 5일차에 본 파라미터가 바로 이것
③ 프롬프트
④ 온도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② 곱하고, 더하고, 문턱과 견준다. 이 셋이 전부야 — 지금 AI도 이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뿐이다.

Q2

③ 규칙을 사람이 다 써 주는 대신, 틀린 만큼 무게를 조금씩 고쳤어. 예시를 보고 배우는 기계의 시작이야.

Q3

② 가중치야. 5일차에 '파라미터가 몇 개다' 할 때 세던 그 숫자가 바로 이 무게들이다.

지금의 AI도 결국,
1958년 그 뉴런 하나를 아주 많이 쌓은 거야.



그런데 이 뉴런 하나로는 못 푸는 문제가 있었어. 내일은 그 벽에 부딪혀 연구가 두 번이나 얼어붙은 이야기 — AI 겨울이야.